

'가짜양성' 논란 해당 병원 2차 피해

광주 중고생 2명... '검체 취급' 과정 오염 때문 이용섭 시장 브리핑서 병원 측 잘못처럼 발표 "사명감 갖고 일하는 의료진 보호해주지 않아"

광주 중고생 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 양성' 판정을 받으며 지역사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운데 해당 학생들의 검체를 채취한 종합병원이 광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의료진 개인정보 유출 등의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해한 광주 서광병원 원장은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두 학생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마치 병원 측 과실이 있는 것처럼 브리핑을 하면서 병원과 의료진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 원장에 따르면 최근 SNS 대화방과 지역 맘카페 등에서 서광

병원 의료진들과 자녀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의료진들이 정신적 피해와 함께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서 원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병원 인력난에도 매일 10명의 의료진들이 쫓돌 더위 속에서 선별진료소 근무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니 마치 의료진들이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만들고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 유덕중 1학년생과 대광여고 2학년생은 지난 11일 진단 검사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에서 검체를 분석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과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등이 4차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잇따라 음성이 나왔다.

관정이 뒤바뀌면서 14일 오전까지 두 학생의 확진 여부를 두고 보건당국과 시에서는 여러 혼선이 빚어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감염 의심자인 2명을 이날 0시 기준으로 각각 광주 33번, 34번 확진자로 질병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발표했다가 추가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회견 말미에 일본의 확진자 분류 사실을 유보했다.

이에 일선 학교와 학부모에게 해당 학생들이 확진자로 분류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배포됐다가 정정되는 등 여러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다 질병관리본부가 진단검사의학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코로나19 검사관리위원회가 이튿날인 1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광주와 충남 의심환자 3명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검체 취급과정 중 발생한 오

류로 인한 위양성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하며 확진자 분류 혼선은 일단락됐다.

병원 '검체 채취'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 업체에서 '검체를 취급' 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됐고 질본이 공식 발표를 한 것이다.

서 원장은 "시가 여러 혼선을 빚는 동안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은 하나도 보호받지 못했다. 일본과 달리 병원 이름은 그대로 노출하면서 정작 검사를 진행하는 민간 업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고 검체 취급 과정에서 오염된 것을 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하며 오염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서광병원 선별진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역을 당했다고 사명감을 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와 일본이 오락가락 발표를 하기 전에 병원과 민간 기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신봉우 기자

전 부인차 정면 충돌 50대에 살인혐의 적용

이혼한 전처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전남 지방경찰청과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51)가 몰던 쏘렌토 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B씨(47·여)의 경차를 정면으로 충돌했다. 쏘렌토와 경차가 충돌하면서 경차를 뒤따르던 쏘나타까지 3중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혼한 아내 B씨가 숨졌고 전 남편 A씨와 쏘나타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결과와 수사와 합동으로 수사를 확대, 이들 차량의 블랙박스화상과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편도 1차로에서 차가 교행할 때는 서행을 한다"며 "시속 50km의 도로인데 상당히 과속을 했던 것 같다. 이에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교 온라인 수업 난입 성기 노출한 바바리맨 검거

고교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불측 등장해 성기를 노출한 '영상 바바리맨'이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A군(18)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22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특정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이 학교 학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입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업 중 한명이 발인권을 요청했고, 교사가 이를 승인하면서 다른 학생들도 모두 해당 화면을 보던 중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는 앱 화면을 끄고 수업을 중지했다.

우울감 호소하던 소방관 근무지서 극단적 선택

우울감을 호소하던 소방관이 근무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16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쯤 지역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소방관이 청사 창고에서 발견됐다.

소방관은 동료 소방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새벽 결국 숨졌다. 쓰러진 소방관 주변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다.

해당 소방관은 평소 동료들에게 우울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사로에 세운 차 밀리며 벽에 낀 女운전자 숨져

경사로에 주차한 차가 밀리면서 6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쯤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A씨(66·여)가 자신의 차와 벽 사이에 끼였다.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치료 중 숨졌다.

차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던 A씨는 비스듬히 기운 곳에 세운 차가 뒤로 밀리자 차를 멈추게 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두동강 난 '전두환 동상' 5·18 민주광장에 그대로 둔다

전씨 사자명예훼손 재판 선고일까지 설치 예정 단체 "전두환 동상이 깨진대로 의미가 있다"

최근 시민들의 분노로 두동강이 난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이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씨의 재판 선고일까지 5·18민주광장에 전시된다.

16일 5·18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전두환 동상이 두동강나는 등 심하게 훼손되면서 동상 존치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회원들은 "부서진 동상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광장에 동상을 그대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는 "머리가 깨진 동상이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시민들이 뺨맞기로 머리를 내리치도록 한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니 동상을 원상복구 한 후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설치물이 광주시로부터 5·18민주광장 시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가 시설물 철거 통보를 보내기도 했다.

조인호 기자

하지만 최근 5·18단체와 시민단체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오사모)'이 시로부터 해당 시설물의 5·18민주광장 시설 사용승인을 받았고 5·18단체가 회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동상을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설 사용승인 기간은 오는 9월20일까지지만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 최종 선고일까지 부서진 동상을 5·18민주광장에 그대로 놔둘 것으로 보인다. 단체는 최종 선고일 이후에는 동상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원작자에게 돌려보낼 예정이다.

5·18 관계자는 "전두환 동상이 깨진대로 의미가 있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더 많아 동상을 그대로 두도록 결정했다"며 "전두환 만행에 대한 범인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요한 본보기로 광장에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전시된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이 두동강나 부서져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